

시설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김미숙¹, 이창식^{1*}

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Mediated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s

Mee-Sook Kim¹ and Chang-Seek Lee^{1*}

¹Dept. of Chil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시설청소년 297명이었으며,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도구로 자립의지는 자기효능감 척도 9문항, 개인적 통제력 척도 5문항, 근로의욕 척도 5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자아탄력성 14문항과 희망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 희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희망은 종속변인인 자립의지를 56% 설명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이 희망보다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dolescents living in residential cares purposely selected in Chungnam province, Seoul and Incheon. Firstly, the result showed th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among independent will, ego-resilience, and hope. Secondly, ego-resilience and hope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s significantly influenced independent will. Thirdly, the result also proved the mediated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Key Words : Residential care, Ego-resilience, Independent will, Hope

1. 서론

전국 280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은 17,586 여명에 이르며[11] 만 18세가 되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소하는 시설청소년 중 상당수가 자립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못하여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의 대책은 시설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부적응자란 편견도 심존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이는 시설청소년이 많고

[1], 높은 역경수준과 탄력성을 함께 지닌 시설청소년들은 내적 갈등과 외적 충격들을 인내하면서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자기성찰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16]. 시설청소년에게 있어 강한 희망은 과도기적 삶을 견디게 하고[25], 불안을 감소시키고 어려운 상황을 잘 다루기 위한 힘과 용기를 준다[27].

희망의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인생의 과도기에서 극심한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설청소년에게 희망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중요변인이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은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이창식(lee1246@hanmail.net)

접수일 11년 11월 02일

수정일 (1차 12년 01월 12일, 2차 12년 01월 19일)

게재확정일 12년 02월 10일

이에 본 연구는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시설청소년의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자아탄력성, 희망과 자립의지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탄력성과 희망의 자립의지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립의지

일반적으로 자립은 경제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의미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시설청소년에게 자립의 의미는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삶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의지반영,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12]. 시설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로는 퇴소예정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와 자립준비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13]와 자립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0,12] 등이 있으나 시설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희망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2.2 자아탄력성

탄력성은 역경과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구사하는 힘으로 시설청소년 중에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청소년 개인의 적응능력 즉 탄력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15]. 즉, 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반면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 문제행동이 더 빈번했으며[7], 탄력적인 시설청소년들은 매번 위기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자기 자신만의 대처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해가며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긍정과 희망을 높이고[12] 도전들을 통하여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할 수 있다.

2.3 희망

Snyder[27]는 희망을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반적인 지각으로만 보는 정의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목표지향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희망주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 희망경로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긍정적인 동기상태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생각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희망은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4] 가출청소년의 회귀과정에서도 비행과 부적상관을 보이며[14], 위험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보호요인[9]으로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희망은 문제의 극복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용하여 만들어진 긍정적인 동기상태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생각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희망은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4] 가출청소년의 회귀과정에서도 비행과 부적상관을 보이며[14], 위험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보호요인[9]으로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희망은 문제의 극복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4 자립의지, 자아탄력성 및 희망과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능성과 환기적(evocative)인 접근을 통해 회피적 대처방식보다 적극적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독립성을 극대화시켜 성공적인 자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23]. 또한 자아탄력성과 희망과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기위험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희망을 높일 수 있으며 성장과 연결되는 기회로 만들었다[19]. 그리고 학교적응에 있어서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희망을 설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탄력적인 청소년을 통해 희망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명하였다[9].

희망은 역경상황, 특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효과를 발휘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0], 심리적 허탈감에 빠진 중년여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노년기의 자립을 준비시키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3], 십대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새로운 삶의 개척과 사회복귀과정의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자립에 대한 삶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요약하면 자립의지, 자아탄력성 및 희망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나 희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충남, 서울, 인천의 시설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3부를 제

의 한 총 297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거주지별로 도시 51.9%(154명), 농촌 48.1%(143명)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65%(193명), 여자 35%(104명)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입소기간은 1년~5년이 39.7%(118명), 5~10년 33.0%(98명), 10년이상 24.6%(73명), 모름 2.7%(8명)로 대부분 중학교 전 88.4%(260명)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단위:명 %)

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93	65
	여자	104	35
거주지역	도시	154	51.9
	농촌	143	48.1
학교급	초등생	113	38
	중등생	121	40.7
	고등학생	54	18.2
	대학생	9	3.0
방과후 하는일	학원수강	86	29.0
	아무것도 않한다	174	58.6
	근로	13	4.4
	무응답	24	8.1
입소기간	1-5년	118	39.7
	5-10년	98	33.0
	10년이상	73	24.6
	모름	8	2.7

3.2 측정도구

자립의지는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금열[6]이 수정한 자기효능감 척도 9문항, Heppner & Petersen

[24]의 개인적 통제력 척도 5문항, 김미라[5]가 수정 보완한 근로의욕 척도 5문항으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09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해리, 조한익[1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48문항 중 외적 보호요인을 제외한 개인 내적 요인척도 24문항을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고 Cronbach's α 는 .897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와 Sympson

[29]이 개발한 희망척도를 최윤희 등[1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명히 아니다’ 1점에서 ‘분명히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고,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768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희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위해 Baron과 Kenny[21]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자아탄력성, 희망, 자립의지 간의 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설정된 변인들의 투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자립의지와 희망($r=.643$, $p<.01$), 자립의지와 자아탄력성($r=.684$, $p<.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및 희망 모두 중간 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아탄력성, 희망, 자립의지 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 통계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297)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M(SD)
자아탄력성			3.32(.48)
자립의지	.68**		3.36(.57)
희망	.59**	.64**	2.59(.38)

** $p<.01$

4.2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희망은 자립의지를 56% 설명하였으며, 자아탄력성($\beta=.47$,

$p<.001$)과 희망($\beta=.37$, $p<.001$)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중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희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자립의지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희망의 중다회귀분석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go-resilience and hope on independent will

(N=297)				
	B	SE	β	t
자아탄력성	.55	.06	.47	9.67***
희망	.54	.07	.37	7.58***
$R^2=.56$, $df=2/296$, $F=183.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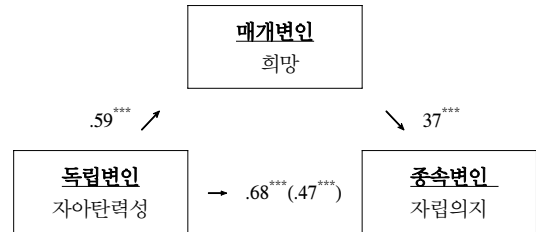
*** $p<.001$

4.3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1]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s test[29]를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자아탄력성은 희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beta=.593$, $p<.001$),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자립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beta=.684$, $p<.001$).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희망이 자립의지에 끼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66$, $p<.001$), 희망과 함께 투입된 자아탄력성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자립의지를 예측한 자아탄력성보다 그 영향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684에서 .467).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를 통해 희망은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β 값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즉 매개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인지를 알아보기로자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Z값은 6.49($p<.001$)로 1.96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

성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희망이 중요한 매개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희망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Fig. 1] The mediated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independent will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중 희망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청소년의 자립의지는 자아탄력성 및 희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희망은 자립의지를 56% 설명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희망 모두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중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립의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아탄력성이 희망을 매개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 자체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희망이 매개함으로써 자립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낮더라도 희망수준을 증진시킨다면 자립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 자립의지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ego-resilience and hope on independent will

(N=297)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2	F	Sobel's test
1단계	자아탄력성	희망	.47	.59	12.65***	.35	159.96***	6.49***
2단계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81	.68	16.11***	.47	259.51***	
3단계	자아탄력성 희망	자립의지	.55 .54	.47 .37	9.67*** 7.58***	.56	183.24***	

*** $p<.001$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청소년들이 자신의 원가족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등,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5] 이들의 희망을 높인다면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인인 자립의지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희망에 관한 연구 및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청소년에 관한 희망연구의 한계로 희망과 자립의지간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른 연구와 비교검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많은 외국 연구에서 제시된 희망의 개념을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희망개념 및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서울, 인천 및 충남권의 일부 시설청소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표집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부지역에 편중된 연구가 아닌 전국적인 시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연구결과 도출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희망과 자아탄력성, 자립의지와와의 관계규명을 통하여 시설청소년들에게 인생성공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립의지와 희망의 관계에서 변인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한 후 실의에 있는 시설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Kang, E. J., "Study on Resilience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 Kang, C. H. & Yoon, H. M., "The improvement plan of self-relia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 The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self-relianc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Korea Child-welfare Association 15th Conference, 2001.
- [3] Koo, B. J., "The Influence of Resilience, Hope, Marital Intimacy, and Family Support on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 4, 421-430, 2008.
- [4] Kwon, K. H.,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Hope for the Korean Adolesc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5] Kim, M. R., "The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of Children from Broken Home", Jeou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6] Kim, G. Y., "Effectiveness of program on strengthening mentally and socially problem-solving ability for the working po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2.
- [7] Kim, B. R., "The Intelligence/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y in Institutionalized Care Children", Hans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8] Kim, E. H. & Lee, C. S., "The Unwed Teenage Mothers' Lived Experience of Hope in a Group Home: Using Parse's Research Methodology",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 19, 44-56, 2010.
- [9] Kim, T. H.,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Hany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4.
- [10] Park, S. J., Influence of self-support preparation program and social support on juveniles in child care facilities for their future. Kyung S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 [12] Sin, H. R., "A study o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 comparing perception between the adolescents and the care providers", Ehwa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0.
- [13] Won, M. H., "The Actual State of Self-Reliance and Desire of Children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from Child-Care Facilities", J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14] Oh, H. J., "Relationship of Attachment with Parents and Friends, and Hope to Juvenile Delinquency", Da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15] Yoo, S. K.,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in Korean Youth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7-205, 2001.
- [16] Lee, H. R. & Cho, H. I., "A Validation Study of the Resilience Scale in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52 - 371, 2006.
- [17] Lee, S. J., "Effect of the Social Resilience,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Runaway Adolescent: focusing youth shelter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71-291. 2011.
- [18] Choi, Y. H., "Validation of the hope scal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8.

- [19] Bailey, T. C., & Snyder, C. R., "Satisfaction with life and hope: A look at age and marital status", The Psychological Record, 57, 233-240, 2007.
- [20]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ediatric burn survivors and matched controls", Children's Health Care, 27, 15-30, 1998.
- [21]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1986.
- [22] Chang, E. C., "Hop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ping in a college student popula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7), 953-962, 1998.
- [23] Garnezy, N.,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Interpersonal & Biological Processes, 56(1), 127-136, 1993.
- [24] Heppner, P. P. & Petersen, C. H.,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1982.
- [25] McGee, L. M., Literacy's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Boston: Allyn and Bacon, 1990.
- [26] Rustoen, I., "Hope and quality of life, two central issues for cancer patients : a theoretical analysis", Cancer Nurs, 18(5). 355-361, 1995.
- [27] Snyder, C. R., "Hope and optimism",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2, 535-54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4.
- [28] Snyder, C. R., Simpson, S. C., Ya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55, 1996.
- [29]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2.

김 미 숙(Mee-Sook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상명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
- 2010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박사과정 중
- 2010년 5월 ~ 현재 : 미래인력 양성정책 연구소연구원

<관심분야>

아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정신건강, 기부문화

이 창 식(Chang-Seek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다문화교육